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 이룰 것”

도도름 한우와흑돈 양순애 대표
한빛로타리클럽 초대회장 역임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것 중요”
고액기부로 그린노블클럽 가입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도도름 한우와흑돈 양순애(54) 대표는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22년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양순애 대표를 소개한다.

연극배우를 꿈꾸던 소녀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양 대표는 본인의 어린시절 애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양 대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고 연극배우의 꿈도 포기하게 됐다”며 “차선으로 택한 경영학과 입학도 포기한 채,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동생들을 돌보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도도름 한우와흑돈 양순애 대표(오른쪽)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정숙 본부장(사진 왼쪽)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것이다.

양 대표는 간호사로 4년을 근무한 후 본인이 원하던 일을 시작했다. 독서실과 학원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운영했다.

양 대표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20년 넘게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됐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고액기부도 결심하게 되었다. 소외아동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아울러 양 대표는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도장애인배드민턴협회, 제주도유소년스포츠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기부와 봉사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제주한빛로타리클럽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단 제주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양 대표는 “봉사에 눈을 뜬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나눔이 있어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말했다.

현재 식당과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양 대표는 “나 자신, 고객, 주위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의 오래된 철학”이라며,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왔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렇지 않은 꿈이었던 연극배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양 대표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회의 문을 계속 두드렸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올여름 제주, 역대 가장 더웠다

기상청 6~8월 기후특성 분석… 평균기온 26℃

올해 제주의 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2년 여름철(6~8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평균기온은 26.0℃로 2017년 25.9℃, 2013년 25.7℃를 제치고 역대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6월이 22.7℃로 역대 2위, 7월이 27.3℃로 역대 3위, 8월은 28.1℃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6~8월 평균기온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26.0℃, 성산 25.6℃, 고산 25.6℃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서귀포는 25.7℃로 역대 7위에 올랐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지역별로 기온 최고 극값 경신이 많았는데, 제주 북부의 경우 1923년 5월 이후 관측 99년 만에 일최고기온 최고기록(37.5℃·8월 10일)을 경신

하기도 했다.

아울러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9.0일과 40.3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북부지역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28일)·열대야 일수(53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서귀포와 고산은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6월 29일)가 관찰됐다.

강수량의 경우 614.9mm로 평년(599.7~795.5mm)과 비슷했으며, 강수일수는 32.8일로 평년보다 5.2일 적었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불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 특히 7월 상순, 8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가 빛은 송편이에요” 추석의 시를 앞둔 7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제주시 키즈빌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빛은 송편을 보여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추석날 제주 ‘흐림’ 11~12일은 비날씨 예보

제주는 추석 연휴 기간 맑다가 추석 당일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21~22℃, 낮 최고기온 28~29℃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하지만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한반도에 있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 낮은 구름대가 제주에 유입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후 연휴 막바지인 11일과 12일에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비까지 예보됐다.

제주기상청은 “추석 연휴 후반부터 기압골 및 열대저압부 등에 의한 강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교육청, 초4~고3 2022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100명 중 2~3명 “피해 본 경험 있다”

피해 응답률 최근 5년중 최대… 언어폭력 41.8%로 최대
“맞춤형 예방사업 학교 피해 응답 낮아 운영 확대할 것”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 2.6%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6만2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

행됐다. 조사 내용은 2021년 2학기 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적·피해·가해 경험 등이었다.

대상 학생 중 5만622명이 응답(참여율 84%)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는 응답률은 2.6%(1322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5%p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18년 초·중·고 전체 피해 응답률 1.6%, 2019년 2.2%, 2020년 1.6

%와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은 등교수업 축소로 2019년에 비해 피해 응답률이 소폭 줄었지만 2021년 9월 전면 등교 시행 영향 등으로 피해 경험 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7%, 중학교 1.2%, 고등학교 0.3%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0.9%p, 0.5%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1%p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응답 건수(중복 응답 포함) 기준으로 보면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4%), 집단따돌림(14.0%) 순으로 많았다. 피해 발생 장소(중복 응답)는 학교 안(71.0%)이 학교 밖(29.0%)보다 높았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학교에 자체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수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동아리’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체 평균 피해 응답률보다 낮은 결과에 주목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또한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기자

제주도 해양레저문화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의 올레카약클럽입니다.



2022.08.26. 구두미포구에서 정방폭포_카약킹. 9인의 카약커.

정통씨카약 - 올레카약 & 올레카약클럽

씨카약은 제주도 일부 해안마을에서 좁은 해역을 정하여 관광객들이 시간단위로 즐기는 체험부명카약과 다릅니다. 씨카약은 입문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과정을 습득하여야 청정 제주 바다의 묘미를 마음껏 맛보는 카약투어링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본기술 익힘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씨카약을 타고 파란 제주바다로 나가면 제주본섬의 해안가 만이 가지는 황홀경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주도 씨카약킹의 무한매력입니다.

올레카약클럽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클럽하우스를 두고 제주바다 전 해역을 투어링하는 제주카약커들의 동호회입니다. (Since 2012) 온라인 네이버 카페에 일반회원 640여명, 온오프라인에는 30여명의 정회원이 있으며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나 제주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씨카약을 타실까요? 올레카약클럽이 속한 올레카약은 정통 씨카약, 서프스키, 패들보드 등 3종의 강습, 장비대여 및 투어링가이드를 진행합니다.

네이버에서 [올레카약클럽](#) 을 검색하세요

씨카약을 통한 해양레저 홍보비 성금에 참여한 올레카약클럽의 회원 가족들: 김태남씨, 김명금강앤드, 장대훈/느티나무아래, 최문준/레오, 권태형/몽돌, 진인태/바우모닝, 장미라, 사르곤, 박형권/서귀포, 김대현/섬카, 한성모/신관, 안성규/엘로우, 김혜영/유니콘, 이재열/제주주민, 정승모/천천히달려, 김준규/헤이븐, 장지혜 (이상 14인)

올레카약클럽

클럽하우스 |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번길 87
전화문의 | 010-3240-2744

@jaesungheo